

설움을 희망으로...목포 상징노래 바꾼다

市, 공모 착수...“목포의 눈물” 슬픔과 한 이미지 강해”

“‘설움’ 이미지 강한 ‘목포의 눈물’을 ‘희망’으로 바꾸자”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이란 첫 소절만 들어도 곧바로 가락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전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해 온 노래 ‘목포의 눈물’. 지난 1935년 ‘목포의 눈물’이 발매된 지 81년 만에 목포시가 기존의 목포의 눈물 외에 또 다른 ‘목포의 노래’ 개발에 나섰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의 눈물’이 일제 강점기에는 국민의 애환을 달래주었고 지난 1980년대에는 프로야구 응원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설움과 한, 슬픔 등

애상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지적이 많아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는 새 노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목포시는 이에 따라 ‘목포의 노래’에 적합한 가사와 곡을 별도로 공모하고 나섰다. 가사 공모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로 장르에 구별 없이 1, 2절 형식이면 된다. 응모방법은 메일이거나 우편접수, 방문, FAX 송신 등 모두 가능하다. 당선작은 오는 11월 시 홈페이지와 개별통지 등의 방식으로 공표한다. 새 노래는 목포항구, 삼학도, 유달산 등 목포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가사 공모 작이 확정

되면 이를 바탕으로 곡에 대한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며 “목포를 상징하는 노래인 만큼 관계 전문가, 시민, 시의원 등 각계 인사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시민들이 사랑하고 애창하는 노래가 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 노래가 만들어지더라도 ‘목포의 눈물’은 목포를 상징하는 노래로서 여전히 목포시민과 국민에게 사랑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의 눈물’이 발표된 1935년 당시 이 음반은 무려 5만 장(당시 가격 1원50전)이나 팔려나가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노래 한 곡으로 이난영은 단번에 가요계의 여왕 자리에 올랐다. 또, 이 한 곡의 유행가는 식민지 땅을 온통 흐느낌에

잠기게 했으며, ‘항구도시 목포’를 애듯한 추억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목포의 눈물’의 탄생은 1935년 1월 오케 레코드에서 ‘조선 10대 도시 찬가’ 노래를 현상 모집한 데에서 시작했다. 10대 도시 찬가의 가사를 공모한 결과, 평양과 부산 그리고 목포 노래가 최종 당선됐고, 오케 레코드 전속 작곡가들이 거기에 곡을 붙여 8월부터 발매가 시작됐다.
이 노래는 목포 출신 문인 문일석(본명 윤재희)이 지은 시에 손목인이 곡을 붙였다. 이난영이 직접 부른 ‘목포의 눈물’ 중에는 1935년 초판을 비롯해 일본에서 발표한 1936년 판, 1957년 라디오 실황, 1961년 공연 실황 등 총 8곡이 현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목포=고구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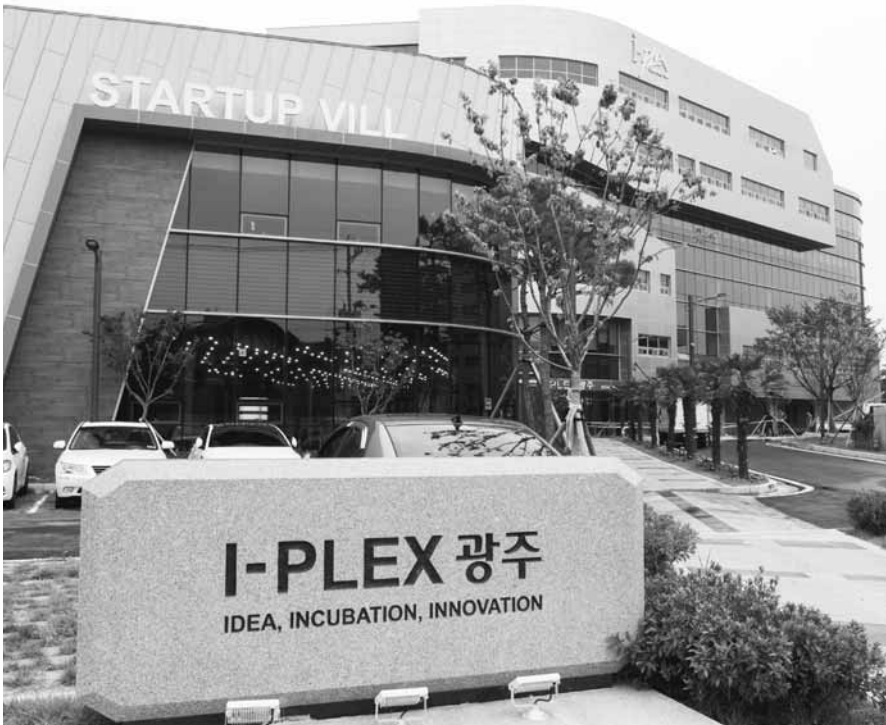
‘완도 전복양식장 르포’ 1면에서 계속

이들 피해어민 중엔 전남도의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정책에 따라 귀어난 청년이 최소 50명 이상으로, 지난 2~3년간 단 한 번도 출하를 못 한 어민도 일부 있다는 게 어민들의 설명이다. 전복은 최소 1년6개월 이상 자라야만 상품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어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폐사한 전복이 적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마치 고수온이 원인인 것처럼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어가 중 재해보험(태풍·강풍·풍랑·적조 등)에 가입한 수는 381여가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수산연구소는 최근 완도 12곳 전복 양식 생산해역 중 금일을 중심으로 4곳에서만 피해가 일어난 점으로 미뤄 적조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수온이 주원인이었다면 완도 전 해역에서 같은 피해가 일어나야 했다는 것이다.
어민들의 걱정은 이번만이 아니다. 최근 경남 거제지역에서 해산물을 섭취한 3명이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완도 전복도 당당히 피해를 입고 있다. 삼지 등 수산물 기피현상이 적조처럼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다.
군은 지난달 27일 완도전복·해수·식당 수족관수 등을 채취한 뒤 전남도보건환경 연구원에 콜레라균 검출검사를 의뢰, ‘이상 없음’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조치는 청정해역에서 키운 전복이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현재 어민들의 경우 적조 추정피해에 김영란법 시행, 콜레라 확산 등 직간접적으로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해당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 ‘아이 플렉스’ 뜬다

광주 동명동에 첨단장비 등 갖춰...이노비즈센터·연합기술지주회사 ‘삼각축’

지역 청년들의 기술창업 플랫폼 역할을 할 아이 플렉스(I-PLEX)가 개원하면서 이노비즈센터와 연합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삼각 축이 지역 청년 창업지원의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집적시설인 ‘I-PLEX 광주’가 7일 문을 연다.
‘I-PLEX 광주’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첨단제조업, 지식·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들어서는 도심형 복합산업시설로 운영된다.
이 시설은 광주가 2011년 부산, 대구와 함께 중소기업청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해 3월 착공한 후 가장 먼저 개관하게 됐다.



청년들의 기술창업 플랫폼 역할과 함께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집적시설인 ‘I-PLEX 광주’가 7일 광주 동명동 옛 광주교육과학연구원 부지에 문을 연다. /김진수기자 jeans@

222억원이 투입돼 광주 동구 동명동 옛 광주교육과학연구원 부지에 세워진 아이 플렉스 광주는 본관 6층과 별관 2층으로 구성됐다. 본관 1층에는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등을 갖춘 시제품 제작실, 투자 상담실 등 기술창업 지원시설이 들어섰다.
광주 청년창업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예비창업자 교육공간에는 공개경연으로 선발된 8개 예비 창업팀이 입주해 육성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본관 2~6층에는 정보통신기술, 생체의료소재 등 첨단제조업과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개발, 전문디자인, 연구소 등 지식·정보통신 분야 중소기업이 입주한다.
별관은 ‘스타트업 빌’이라 불리는 카페형 창업 공간으로 사무실이 없는 창업 준비자 등이 사용하는 개방형 시설이다.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이노비즈

센터는 제조업과 함께 기술창업 분야를 지원한다. 지난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가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창업을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노비즈센터에는 기술사업화 시너지 효과와 큰 20여개 관계기관 및 기업이 입주해 예정이다. 2018년까지 총 40여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 명실상부한 광주 특구의 종합지원 거점센터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등으로 기술사업화를 꿈꾸는 청년들은 이노비즈센터 내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를 활용하면 된다.

또한, 지난 6월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사업화이 체계적인 관리와 공동 네트워크 수행을 위한 컨트를 타워 역할을 한다. 대학, 연구소 등의 특허나 기술 등의 거래, 이전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특허 창업을 촉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이플렉스 등 3각 축 이외에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문화예술이나 차량에 기반을 둔 창업 등 생활창업을 지원중이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청년 창업 특례보증 등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김영란법’ 시행령 의결...직종별 매뉴얼

부정청탁 받고 신고 안하면 징계 대상

공공기관 기자간담회는 적용 안받아

임장권·할인권·초대권 ‘금품’

공공기관이 전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음식물을 제공하면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돼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만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김영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하면 해당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양벌규정은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제도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부정청탁을 하면 청탁사항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할 경우에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가 되지만, 제3자의 고충 민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내용을 변형해 새로운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이 된다.

또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승진 등의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인 의사표현으로 보고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유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다.

매뉴얼은 또 신고절차에 대해서도 소

개하고 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먼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

매뉴얼은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수수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먼저 금품의 종류를 보면 재산적으로 이익을 주는 금품으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 들어갔다.

또 편의 제공 측면에서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향응, 교통·숙박 등을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는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을 금품으로 제시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 게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나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그 예외로 인정이 된다.

여기서 공무원, 시민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는 공식적인 행사에 들어가지만, 특정 사업 운영권 획득을 위해 주무부처 공무원 대상 토론회는 공식적 행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연두 업무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해 ‘3·5·10만원’으로 대변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홍보를 목적으로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하면 공식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경연이나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은 허용된다. /연합뉴스

선관위, 지역구 정치인 ‘명절 선물’ 집중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선관위에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환·귀경버스 무료 제공 등이다. 또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

은 경우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 등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내 전·의정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에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 /연합뉴스

사람을 찾습니다



실종 당시 모습

- 162cm의 아른 체격, M자형 대머리, 목 뒤에 강낭콩 크기만한 혹이 있음
- 가슴, 배, 머리에 수술자국이 있음
- 실종 당시 삼성계이트볼 글자가 자수로 놓인 검은색 책, 뒷면은 흰색인 모자를 쓰고, 상의 모시 옷가지 없는 반팔에 곤색 망사 주머니가 있는 조끼, 하의 검은색 바지, 흰색 바닥에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 3차려 암수술과 오랜 투병생활로 치매증상 있으며 체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하고 청력이 약함
-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평상시에 약을 못드시면 잠도 제대로 못주무셨음) 갑자기 통증이 있을시 깜빡깜빡 놀라시기도 함

실종일시 : 2016년 8월 3일
실종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지구 중흥아파트 정문 인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빠 좀 찾아주세요!!

최규복님 아들 최현성
010-5113-6582

해남관리지역 (낮은 야산) 급 매

문내면 석교리 **5300P**

P당 2만5천원
폭6m 현황도로 있음

목포 생활권
해남기업도시 인접

향후 태양광-귀농을 위한 최고의 토지임

태양광
밭, 과수원
주택, 축사
사료공장
창고
일반공장
퇴비공장 등
모두 가능

문의전화(지주)
010-7979-8257

완전 파격 상가 임대

나주혁신도시 호수공원인접 신축상가

-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과 부영아파트 인접
- 상업지역으로 시비권없음
- 6층건물중 3층 3칸 (약200평)
- 사무실, 식당, 노래방등 전업가능
- 월임대료 1년간 무료.

문의전화

010-3782-7360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리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 250평 토지 17평 ▶ **감정가 2억1천3천 최저가 1억9천7천원**
- **서구 양동** 건물425평 대지175평 숙박시설 방40개 지하층~지상5층 ▶ **감정가 11억 최저가 6억 (감정가의 45%)**
- **광산구 신창동** 신축3층원룸건물108평 대지70평 방11개 수문초, 신창중인근 위치 및 건물특성 ▶ **감정가14억7천 최저가73억7천**
- **서구 쌍촌동** 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점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당

- **남구 봉선동** 모아아파트인근 1층근린상가 건물85평 대지57평 투자최적 ▶ **감정가 6억5천만원 최저가 6억5천만원**
- **서구 치평동** 6층근린시설 세정아울렛인근 건물 280평 토지69평, 상권좋은, 커피전문점운영중 ▶ **최저가 9억5천만원**
- **동구 동명동** 3층근린주택(상가+주택) 아시아문화전당부근 건물86평 토지47평 건물상대용중 ▶ **최저가 2억3천만원**
- **영암군 시종면** 근린시설 3층건물306평 대지209평 주차장있음 면사무소인근 계획관리지역 ▶ **감정가 8억9천 최저가 3억2천만원**

★ **금매** ▶ **광산구 하남3지구** 38차선 대로점 상업지역 대지132평 전면넓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현역 ▶ **거래가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자본 없이도 채테크 가능!!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없이도 공장을 소유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7. 18 (월) ~ 2016. 9. 9 (금)
- 수업기간 : 2016. 9. 8 ~ 2016. 12. 8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8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earning
- 접수문의 : 062)230-7700~2 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